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6.9



중동 _ IS조차 하나님의 종으로!

IS에 납치되어 구타당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세프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간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2014년, IS 대원들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기독교인이 사는 집마다 “ن”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아랍 문자 “N”을 뜻하는 이 기호는 ‘나사렛 사람 Nazarenes’을 지칭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기독교인 가정들에게는 최후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호세를 내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치거나, 그도 아니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남겨두고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유세프와 하산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IS의 영향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IS가 중동에서 벌인 일들은 유세프나 하산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참소망과 진리를 찾게 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말입니다.

IS는 중동 전역에 공포와 고통만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IS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치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는 중동 지역의 최신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유세프와 하산 같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뤄가시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CAN ME!



IS가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유세프 파우지Yousef Fawzi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2014년 8월 6일, 그의 집 문 앞에 서 있던 중무장한 사내들은 자칭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라 주장하는 IS 소속 대원들이었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던 유세프의 가족이 살고 있던 이라크의 모술Mosul시를 점령했었다.

2014년 여름은 IS 무장 세력이 모술을 장악하고 그들이 쫓는 엄격한 이슬람 법 해석을 강제로 시행했던 잔혹한 3년 통치의 시작이었다. 주민들은 위반이라 의심되는 행위만으로도 고문과 처형을 당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유세프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야 했다. 점령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이라크 군인 4,000명이 처형당했고, IS 대원들은 수천 명을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고문했다.

IS 극단주의자들이 들이닥쳤던 그때, 유세프와 그의 부모는 모술의 집 안에 갇혀버렸다.

원수의 손아귀

가족들은 벽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그림들을 붙여두고 있었고, 이는 열린 문 너머로도 볼 수가 있었다. IS무장 대원들은 들이닥치자마자 그림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유세프의 병든 아버지와 연로한 어머니까지 위협한 후 유세프를 끌고 나갔다. “깨어났을 때, 손이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유세프가 말했다. 그는 왼쪽 다리 종아리 근육을 꿰뚫고 휘감긴 쇠사슬에 묶여서 IS의 감방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이내 IS 대원들은 다른 방법들로 유세프를 고문했다. 소를 몰 때 쓰는 전기 채찍으로 그를 때렸고, 유세프가 의식을 잃으면 구정물을 뿌려 그를 깨웠다. 이러한 학대가 이어지는

내내, 그들은 유세프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려 애를 썼다.

“잡히고 처음 4일 동안 그들은 내게 이슬람교로 개종해 자신들과 함께 싸우며 IS의 일원이 되라고 강요했어요”라고 유세프는 말했다. 그가 계속 거부하자 납치범들은 전략을 바꿨다. 그들은 유세프를 방 안

◀ IS는 유세프의 다리에 쇠사슬을 걸어 채운 채 45일 동안 감금했다. 의사들은 처음에 그의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기둥에 묶어두고 무슬림 여성 세 명을 들여보내, 성폭행을 가하며 돈으로 유혹하게 했다. 그 여자들은 며칠 동안 함께 있어야만 했던 유세프에게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자신들과 결혼을 해야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세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

12일이 지난 후, 납치범들은 유세프를 다시 감방으로 끌고 가 다리를 묶어 천장에 매달고 구타했다. 심지어 그의 다리에 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유세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얼마나 더 버틸 생각이야? 그냥 항복해. 너 자신에게 자비를 좀 베풀란 말이야. 그냥 개종해버리라고. 왜 스스로 이런 고생을 자초하는 거지? 그냥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우리 편이 되지만 하면 자유로워진다니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유세프가 말했다.

고문은 간헐적으로 한 달이 넘게 계속 가해졌다.

결국 유세프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납치범들에게 이제 그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를 납치하고, 해치고, 벌주며,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라고 유세프가 말했다.

45일 후, 유세프를 고문하던 자들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무장 경비병들이 유세프를 밖으로 끌고 나가 눈을 가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하며 피에 물든 셔츠를 입은 채 유세프는 가만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무리 중 우두머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형 집행을 중단해. 그 자는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쳐 버려!” 전화를 끊은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테러리스트들은 유세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를 구타했다.

두 배의 자유

어느 무슬림 아랍인 남성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나 마침내 자유를 얻은 상태의 유세프를 발견했다. 그들은 IS무장군과 전투 중인 이라크 쿠르드족 군인들에게 유세프를 데려갔다. 군인들이 키르쿠크Kirkuk에 있는 가톨릭 병원으로 유세프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세프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병원의 밝은 불빛에 눈이 부셨고, 주변 환경은 방금 전까지 겪고 있던 잔혹한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부상에서 회복된 유세프는 다시 중동으로 돌아왔다.

유세프는 자신이 죽어 천국에 온 것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유세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병원 직원들이 전화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누군가 자신들을 속이려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유세프의 재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건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하루에 겨우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유세프가 말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돌아가 복수하고 모두 죽여버리고 싶다는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유세프에게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치료를 제공했고 정기적으로 유세프를 만나러 오던 기독교인들은 그가 복수심 어린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게 영적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유세프는 성령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렸다.

“그 자들이 내게 했던 일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똑같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 묻고 이야기 나누었어요. 비로소 난 그들을 잊을 수 있고, 내게 일어난 일도 잊을 수 있어요. 그들의 격려 덕분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말했다.

유세프는 자신의 삶의 목적 또한 바뀌었다고 했다. 건강이 회복된 후 그는 중동으로 돌아갔으며, 현재 다른 이라크 난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유세프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지, 우리 인생에서, 특히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IS 납치범들이 그를 처형하겠다고 했다가 왜 풀어주었는지에 대해 묻자 유세프는 이렇게 답했다. “모르겠어요.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유세프는 저마다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유세프는 지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붙잡아주셨는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전도 행사에서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



2026년 9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북한 추적 불가능한 모든 성경 및 쪽성경이 북한 내부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기를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얻도록 (롬 15:13)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얻도록 (롬 15:13)
6	7	8	9	10	11
 모로코 교회의 공예배를 막는 정부의 방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멕시코 멕시코 중부에서 사역하는 아론 같은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독교인 난민들이 다른 난민에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도록	 카자흐스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계속 예배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리비아 복음을 전한 대가로 목숨을 잃은 선교사와 토착 기독교인의 가족들을 위해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얻도록 (롬 15:13)
13	14	15	16	17	18
 카메룬 보코하람에게 공격, 납치당한 어린이들의 영적 돌봄과 치유를 위해	 스리랑카 기독교인을 대적한 불교 승려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에리트레아 석방 후에도 감시받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중국 계속해서 정부의 억압과 감시를 받는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알제리 매체와 온라인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에 감사 (사55:11)	 이라크 전도 사역 때문에 계속 생명을 위협당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20	21	22	23	24	25
 콜롬비아 게릴라 집단의 납치와 강제 모집 위험에 노출된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이라크 전도 사역 때문에 계속 생명을 위협당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이슬람 무장 단체의 공격에 난민이 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말레이시아 레이먼드코 목사 납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인 가족들을 위해	 바레인 종교, 정치, 경제적 갈등 속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얻도록 (롬 15:13)
27	28	29	30		
 튀니지 가족의 핍박에도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몰도바 믿음 때문에 투옥된 개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핍박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타지키스탄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4	5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간 난민을 전도했다가 체포, 석방된 파장을 위해	지부티 주변 지역에 은신한 테러리스트로부터 지부티 국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11	12
니카라과 독재 정권에 의해 폐쇄된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파키스탄 복음 선포 때문에 체포, 고문당한 전도자들의 치유와 위로를 위해
18	19
베냉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집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카타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에 감사
25 추석	26
우간다 예수님을 믿은 후, 부모나 주민들의 구타로 부상당한 청년들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이란에 수감된 목회자들을 지원해주세요!

지난 2년 동안 이란 정부는 지하교회에 대한 조직적인 침투 작전을 벌였고, 그 결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수감된 지도자들과 그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 가정은 매달 집세를 낼 돈도 없습니다. 일부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당해 거처를 옮겨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감된 지도자들 모두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란 교회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여 9월 30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이란'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이란'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성육신을 보여준 기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부르짖던 한 이슬람 학자,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다.

하산Hassan은 이슬람교를 아주 광신적으로 신봉하던 자였다. 그는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라고 짓기 까지 했다.

중동의 한 급진파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하산은 어린 나이에 이슬람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실무 이슬람법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 덕분에 그는 변호사이자 몰라 mullah 이슬람교의 율법학자 또는 교사가 되었다. 결국 하산은 이슬람 대학의 교수직을 맡는 한편, 그 지역 내 모든 몰라를 양성할 책임을 지는 정부의 교육 담당자로 승진했다.

하산은 또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IS에 가입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직업적 위치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몰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이 IS에 가입하도록 항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격려했었어요.” 하산이 말했다.

이슬람교를 향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산은 코란Quran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 학업 중 일부가 비교종교학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코란에는 명백한 오류들이 있었거든요”라고 하산이 말했다.

드러난 진리

하산의 경력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많은 무슬림들이 ‘아랍의 시작Arab Openings’이라 부르는 이슬람교의 초기 군사적 진출에 관한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였다. 하산은 더 이상 그 정복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없었다. “나는 그 일들이 이슬람 역사상 정말 범죄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 정복 사건들을 하산이 계속 비판하자, 몇몇 학생이 벌떡 일어나 학장

에게 당장 강당에 와야 한다고 알렸다. 강당에 급히 달려온 학장은 하산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하산은 그에게 자리에 남아 강의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강의를 마쳤고, 그날이 그곳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의 예상대로 학장은 즉시 하산을 해고했다.

그 당시 하산은 다른 종교를 깊이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하산의 두 아내는 이런 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산의 첫째 아내는 “당신 미쳤어요?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하산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이슬람교를 진리로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둘째 아내 마나르Manar는 그의 결을 지켰다. “나는 인내심이 많거든요. 여전히 남편을 참아주며 살고 있지요.” 마나르가 웃으며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산은 우연히 기독교 위성 TV 채널에서 방영되던 영화 <예수JESUS>를 보게 되었다.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보던 하산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한 인간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분이 항상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안타까웠고요. 나는TV를 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의 감정은 이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규로 변했다. 하산은 하나님께 물었다. “왜 제가 당신을 찾아 수년을 헤매게 하셨습니까? 왜 제게서 당신을 숨기시는 겁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왜 길을 잃고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까? 제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설령 그로 인해 내가 죽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계속 기도하던 하산은 문득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게 과연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하산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알라가 자신의 종교적 노력을 받아주어 언젠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열성적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란 하산. 하지만 이슬람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수록 그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 위협과 공격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던 하산의 가족.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이상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요”라고 하산이 말했다.

제자 삼는 제자

극적인 기도 시간 이후, 하산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줄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는 성경을 믿는 어느 목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자신의 엄격한 이슬람 배경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의 여성 사무직원과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목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하산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 목소리는 ‘넌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어’라고 말했고, 다른 목소리는 ‘아냐, 그대로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산이 회상하며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고, 목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산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

하산은 다른 무슬림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집 거실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새로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하산을 찾아온 많은 사람이 그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마나르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산 부부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근처에는 IS 부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집 바로 건너편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 하산의 종교적 신념이 지역에 알려지자, 그는 익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 “그를 죽여야 한다! 그는 카피르kafir^{불신자}이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결국에는 하산을 살해하겠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위협을 경찰까지 파악했다. 경찰 내부 관계자는 그의 가족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경고했고, 하산 가족은 그렇게 했다.

진리 위에 서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 하산은 자신의 대가족 중 20명이 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스도의 몸 된 전 세계 교회는 하산의 가족을 위해 다른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하산이 새로운 직업을 위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산의 옛 동료들 중 일부가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아직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도 대부분 받지 않지요. 내 위치가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산은 말했다.

하산과 마나르에게 있어 계속해서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압박을 견뎌내는 일이다. 마나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다. 또한 하산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산 부부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두 사람은 무슬림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하산과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을 자유케 하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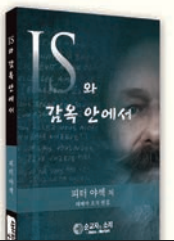
▼ 무슬림들이 기독교 및 성경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하산은 책을 집필했다.



9 월 은

중동의 형제자매를 기억하는 달!

아래 도서로 **무슬림**에 대해 배우며 **중동의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IS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수단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다 체포되어 1년 이상 IS와 감옥 안에서 생활한 순교자의 소리 지도자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란-희망과의 조우
10,000원

폭탄이 떨어지는 혼란과 정부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예수님을 부인해야 살려준다는 협박에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도서 주문을 원하시면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해 주세요.



㉠ 그들의 목소리 단편영상 시청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 이슬람권 나라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 당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재연한 단편 영상.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세요.



QR코드



이란
파디나 편



시리아
리에나 편



팔레스타인
폴린 편



파키스탄

㉡ 긴급 기도제목

매주 핍박 국가 현장에서 보내오는 긴급한 기도제목이 담긴 5분 영상을 시청하며 히 13:3 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함께 시청하며 기도하세요.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세요.



QR코드



㉢ 수감된 이란 형제들에게 편지쓰기

마태복음 25장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들에게 가정, 교회, 소모임에서 가족, 친구,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감자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구절과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붙이는 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요셉 사비잔 목사
2025년 2월 체포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 형제
2018년 1월 체포